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6, Number 1, February, 2014: pp. 69~88
통상정보연구 제16권 1호 (2014년 2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14. 02. 14
심사(수정)일 : 2014. 02. 22
게재확정일자 : 2014. 02. 27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가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China's Trade-related Policy Changes on Export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China

홍재성(Jae-Sung, Hong)
중앙대학교 무역물류학과 박사(주저자)

이용근(Yong-Keun, Lee)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0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의 변화 요인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상당수가 법리분석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현지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진출해 있는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의 대응전략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다.

연구결과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은 노무정책 요인이었으며 다음은 환율정책 요인이었다. 결국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상당수는 환율정책 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많은 영향도 받지만 저렴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진출한 생산형 기업이 상당수이므로 그에 대한 기업 및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 중국, 정책 변화, 수출성과, 위계적 구조

Ⅰ. 서 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발 유동성 위기로 주춤거렸지만 여전히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한 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외자기업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단행한 것도 큰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하였고, 이는 중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역수지 불균형, 산업구조의 왜곡과 같은 위험이 있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국들과 통상마찰을 빚었으며 대내적으로 저부가가치 생산형 공장으로 인한 기술력 낙후, 환경오염 그리고 자원의 남용이 심각했다. 결국 이와 같은 요인은 중국의 무역 관련 정책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2000년대 이전의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정책은 사실 실효성이 없었으나 2000년 이후에 발표되는 가공무역에 대한 제재 정책, 위엔화 변동, 노동계약법에 따른 인건비 상승, 기업의 소득세 조정과 같은 정책 변화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연구 논문이 상당수 있다.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법리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 요인의 범위를 각각에 국한하여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무역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다. 코트라의 중국 진출기업 서베이 리포트에 따르면 현지의 정책 변화가 제조 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국 중국 정책 변화 요인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중국 현지의 한국계 제조형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현지 외자기업과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겨냥한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무역 관련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러한 정책이 현지에서 제품 생산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영향이 있다면 어떠한 요인이 수출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다음은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문의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결국 본 연구는 현지 외자기업과 중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응전략 수립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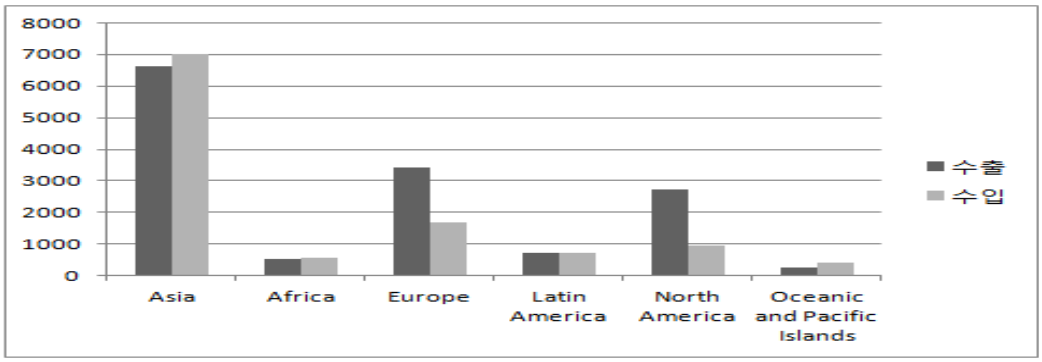
1. 이론적 배경

1) 대외적 요인

중국의 무역구조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반제품이나 부품 등을 가공하거나 조립 생산하여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대외적인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무역수지 적자국들과 무역마찰을 일으켰다.

<그림 1>은 2008년 중국의 지역별 무역구조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지역에서는 수입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는 수입초과액이 200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북미와 유럽쪽은 수출초과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위: 억달러



〈그림 1〉 중국의 지역별 무역구조(200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중화인민공화국통계청), 『中國統計年鑒(중국통계연감)2009』, 中國統計出版社(중국통계출판사), 2009, pp.733~736.

<그림 2>는 중국의 2008년 지역별 무역구조와 비교한 2011년의 무역구조로[1] 전체적으로 무역량이 상승한 것 외에는 특이한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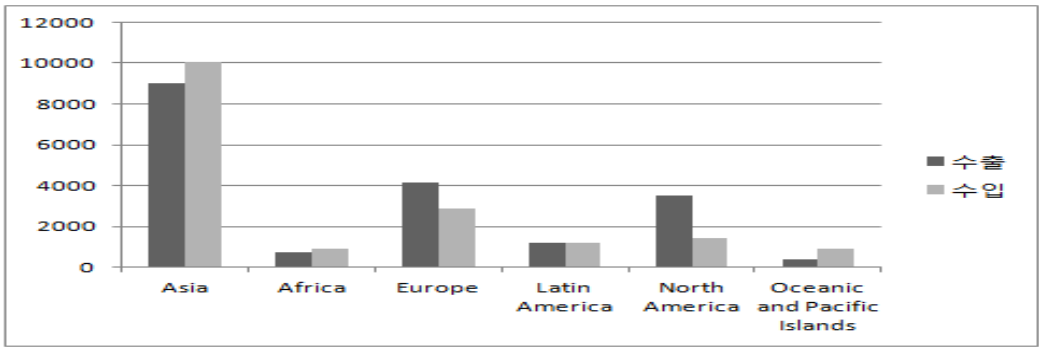
중국의 경제성장 초기 자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생산성이 미약했으며 외화 확보와 고용 증

1) 유럽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 정부는 단순 제조 및 가공무역에 대한 제재 정책을 2005년부터 미국의 유동성 위기가 있기 전인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공포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만과 미국의 유동성 위기로 중국 정부는 각종 규제 정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완화 정책을 공포한다. 따라서 2008년과 현재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가 급선무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각도로 외자유치 정책을 실시하였다.[2] 많은 기업들은 중국의 우혜정책을 기반으로 현지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 구조의 면면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 투자된 구조이다.[3] 결국 한국, 일본,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의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부품 등을 중국에서 단순 조립 및 가공을 하기 위해 반입하여 제품화 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그림 1>과 <그림 2>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자국에서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을 거친 제품을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로 수출하는 형태로, 과도하게 그 형태가 팽창되어 무역수지 측면의 불균형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이나 유럽과 무역마찰을 초래시켰다. 결국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유럽의 통상압력은 중국의 위엔화 평가절상까지 이어졌다.[4]

단위: 억달러



〈그림 2〉 중국의 지역별 무역구조(201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중화인민공화국통계청), 「中國統計年鑒(중국통계연감)2012」, 中國統計出版社(중국통계출판사), 2012, pp.242～245.

2) 대내적 요인

중국은 산업구조는 외국 또는 자국의 생산형 기업이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기반으로 반제품 또는 부분품을 단순 조립하거나 가공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단순 제조 산업 시스템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산업으로 중국의 에너지 소모를 확대시켰으며 환경을 오염시켰다.[5]

2) 河原昌一郎&明石光一郎, "中國の加工貿易とFTA戰略",「農林水産政策研究」, 第17号, 2010, pp.46~47.
3) KOTRA,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하)」, 2011, pp.13~15.
4) 井上和子,「擴大する中國の貿易黑字と貿易構造轉換—進められる加工貿易の抑制」, 経済センサー, 2007, p.8.; 水野亮,「中國の輸出制限的な動きの問題」, JETRO, 2007, p.2.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편향성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 집중되었고 그러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또한 낮았다. 노동집약의 형태인 저부가가치 공정은 중국 국내 보조산업과의 연관성 효과도 낮았다.[6] 그리고 중국 국내 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어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산업경쟁력이 약해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7] 마지막으로 단순 조립 및 생산을 기반으로 한 저부가가치형 제조산업은 중국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켰다.[8]

2. 선행연구

1) 중국 무역관련 정책 변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은 대외적인 무역수지 불균형과 대내적인 산업구조의 왜곡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변화 요인은 현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위험요인이며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 요인을 무역, 환율, 노무, 세무로 구분하고 그러한 요인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출성과 요인도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로 한상현(2001)[9]은 중국이 가공무역의 관리를 강화하게 된 원인과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그러한 환경이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을 주는지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하현수(2011)[10]와 안재진(2006)[11]은 중국의 가공무역 관련 무역정책 변화가 업체들에게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업체와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기하였다.

최창열(2010)[12]은 중국의 대내외적인 요인이 기업의 투자환경을 변화시켰으며,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유정(2011)[13]은 중국의 정책 변화로 기업에 제공되던 기존의 우대혜택이 폐지되는 등의 비즈니스

5) 하현수, “중국의 가공무역관련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p.339.
6) 楊玉華, 「國際貿易對就業的影響」, 經濟管理出版社, 2007, p.267.
7) 關志雄, “トップ500社から見た中國企業の實力”, 「中國經濟新論」, 2002, p.1.
8) 韓堅放, “中國における加工貿易の産業構造高度化と課題”, 「關西外國語大學研究論集」, 第90号, 2009, p.90.
9) 한상현,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관리제도 변경내용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논문집」, 제37집, 강남대학교, 2001, pp.1~23.
10) 하현수, 전게논문, 2011, pp.325~350.
11) 안재진, “중국 무역정책의 주요 변경 내용과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 pp.217~241.
12) 최창열,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pp.103~124.
13) 유 정,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中國學論叢」, 제34권, 한국중국문화학회, 2011, pp.163~189.

환경 변화는 기업의 어려움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김지연(2011)[14]은 중국의 최근 정책 변화 상황을 현지 진출 기업을 사례로 들어 검토하였고,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들어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국외연구로는 郭永興(2008)[15]이 중국의 내료가공정책 변화가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천의 테크노센터를 사례로 들며 일본 기업을 연구하였으며, 上田慧(2008)[16]은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가 현지에서 제조 및 단순 가공업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저부가가치를 창출하던 기존의 제조업체는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중국의 변화 환경에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2) 수출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의 수출성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성과 변수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합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하다.[17]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 측정방법은 경제적, 비경제적, 만족도 등과 같이 분류한다. 그러나 자사의 수치가 공개되는 경제적 측정 방법을 꺼리는 기업들도 많아 비경제적 측정 방법으로 대체한다. 비경제적 측정 방법은 설문 응답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측정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18]

Sousa(2004)[19]는 수출강도, 시장점유율, 수익률, 성장률 등이 수출성과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으며 Aaby and Slater(1989)[20]는 수익률이 수출성과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Raven, McCullough and Tansuhaj(1994)[21]는 성공, 만족의 요소는 주관적인 수출성과의 지표이고, 이러한 요소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한다고 제시하였다. 실제로 Hambrick and Mason(1984)[22]은 많은 기업가들이 자사의 객관적인 성과 수치를 공

14) 김지연, "대중국 통상환경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유통정보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유통정보학회, 2011, pp.165～183.
15) 郭永興, "轉換期に立つ中國の來料加工貿易制度", 「京都大學経濟論叢」, 第182卷 第2号, 2008, pp.50～67.
16) 上田慧, "中國·珠江デルタにおける委託加工貿易の変貌", 「同志社商學」, 第60卷 第1·2号, 2008, pp.1～17.
17) Adamantios Diamantopoulos, "From the Guest Editor",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6(3), 1998, pp.3～6.
18) Constantine S. Katsikeas, Leonidas C. Leonidou and Neil A. Morgan, "Firm-level Export Performance Assessment: Review, Evalu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4), 2000, pp.493～495.
19) Carlos M. P. Sousa, "Export Performance Measurement: An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Literatur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Review*, 8(9), 2004, pp.1～23.
20) Nils-Erik Aaby and Stanley F. Slater, "Management Influences on Export Per- formanc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1978～88",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6(4), 1989, pp.7～26.
21) Peter V. Raven, Jim M. McCullough and Patriya S. Tansuhaj,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Decision-Making Uncertainty in Export Channels: Effects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2(3), 1994, pp.3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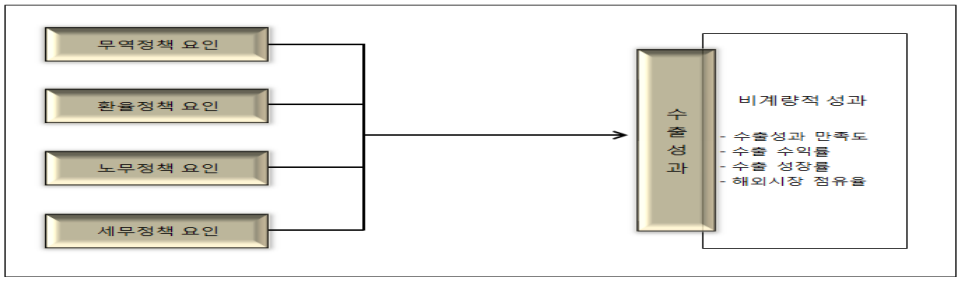
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주관적인 지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한 측정지표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연구자의 연구 방향성에 맞추어 측정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동시에 사용한다. 그리고 기업가들이 자사의 명확한 수치 공개를 꺼려할 것이라는 패널의 의견을 토대로 비계량적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 요인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요인인지, 이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그림 3>과 같이 개발하였다. 모형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들로 무역, 환율, 노무, 세무 정책 요인을 사용하였다. 현지 제조업체들과 사전 인터뷰를 한 결과 환경정책 요인을 제외한 무역, 환율, 노무, 세무 정책 요인의 항목이 기업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이러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수출성과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 다양한 견해 및 지표가 존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출성과 만족도, 수출 수익률, 수출 성장률, 해외시장 점유율을 비계량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22) Donald C. Hambrick and Phyllis A. Mason, “Upper Echelons: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84, pp.514~535.

2. 가설설정

1) 무역정책 요인

중국은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른 대외 통상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러한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중국내 산업구조의 문제로, 해결방안으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와 증치세 환급 축소 및 폐지와 같은 제조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23] 중국의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은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함정오(2011)[24]는 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인하와 폐지,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 및 금지 품목의 확대, 수출관세 부과 확대 요인들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원가상승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강형종(2007)[25]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을 상대로 최근 기업 환경 리스크가 성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였는데 증치세 환급률 인하와 그로 인한 자금압박이 기업의 성과만족도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패널조사 결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의 확대와 그로 인한 보증금 제도의 강화도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무역 정책 변화 요인이 현지에서 제조 및 가공을 하는 업체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중국의 무역정책 요인은 현지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환율정책 요인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평가 절하된 통화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했다. 무역 적자국의 압력으로 인해 환율에 변동을 가했고, 그러한 여파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성과에 전가되었다. 박애란(2005)[26]은 중국 환율 정책의 변화의 일환인 평가절상과 변동폭의 확대는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

23) 안재진, 전게논문, 2006, p.218.
24) 함정오, “재중 한국계 외자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68.
25) 강형종, “투자환경리스크와 대응전략이 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5.
26) 박애란, “체제전환기 중국 통화 및 환율정책의 운용과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121~123.

을 제시하였고 왕효뢰(2009)[27]는 중국의 환율 제도 변동과 기업 재무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환율 관련 정책 변화 요인은 현지에서 제조 및 가공을 하는 업체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중국의 환율정책 요인은 현지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노무정책 요인

이희운(2011)[28]은 중국의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결국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고 한준우(2002)[29]는 현지 노동환경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우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허자천(2011)[30]은 중국의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임금 부분의 비용상승 리스크는 현지 진출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노무 관련 정책 변화 요인은 현지에서 제조 및 가공을 하는 업체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중국의 노무정책 요인은 현지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세무정책 요인

중국은 대외적인 무역수지 불균형과 대내적인 산업구조의 왜곡을 재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정책을 실시했다. 정설정(2013)[31]은 중소외자기업에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고 강승구(2008)[32]는 중국 세무 관련 정책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세부담의 증가와 세무조사의 강화

27) 왕효뢰, "변동환율제도하의 위안화 환율변동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 상관관계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57~58.
28) 이희운,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79~81.
29) 한준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93~98.
30) 허자천, "현지화 전략을 통한 차이나 리스크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43~69.
31) 정설정,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이 한국기업 중국투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29.
32) 강승구, "중국의 조세환경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61~62.

가 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세무 관련 정책 변화 요인은 현지에서 제조 및 가공을 하는 업체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중국의 세무정책 요인은 현지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최근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 요인은 현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현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코트라에서 발간한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회사에 직접 이메일을 발송함과 동시에 현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109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오류 및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07부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본 연구는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이 먼저 실시되었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요인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기업에 가장 영향을 주고, 다음은 어떠한 요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모든 분석은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응답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먼저 품목별 형태를 살펴보면 피혁, 목재, 섬유, 신발을 취급하는 기업이 3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계, 전기기기를 취급하는 기업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품목의 노동집약도를 설문한 결과 96개의 기업이 자사가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이 노동집약형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

해 노동집약형 기업이 대거 진출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화 기준의 연간 매출액은 50억 미만이 70개 기업, 50~100억 미만의 기업이 21개로 전체의 85%를 점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수는 100명 미만의 기업이 88개로 전체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는 진출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거나 매우 영세한 기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단독투자를 한 기업이 97개로 설문기업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는 코트라에서 해외진출기업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단독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33]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수	구성비율(%)
품 목	농수산물 및 식료품	7	6.5
	광물, 자원	1	0.9
	화학, 플라스틱, 고무	6	5.6
	피혁, 목재, 섬유, 신발	37	34.6
	도기, 귀금속	2	1.9
	철강, 비금속	15	14.0
	기계, 전기기기	30	28.0
	운송, 정밀기기	7	6.5
	기타	2	1.9
노동집약도	그렇다	96	89.7
	아니다	11	10.3
매출액	50억 미만	70	65.4
	50~100억 미만	21	19.6
	100~300억 미만	7	6.5
	300~500억 미만	6	5.6
	500~1000억 미만	3	2.8
종업원	100명 미만	88	82.2
	100~300명 미만	8	7.5
	300~500명 미만	3	2.8
	500~1000명 미만	6	5.6
	1000명 이상	2	1.9
투자형태	단독법인	97	90.7
	합자법인	8	7.5
	합작법인	2	1.9
합 계		107	100.0

33) KOTRA, 전게서, 2011, p.15

2. 실증분석의 결과

1) 요인 및 신뢰도 분석

(1)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측정 항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항목들이 동일 요인으로 묶이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요인분석은 일반적으로 KMO (Kaiser-Meyer-Olkin) 값이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 본 논문의 연구변수인 무역정책, 환율정책, 노무정책, 세무정책, 수출성과 요인은 각각 0.674, 0.743, 0.795, 0.500, 0.807로 적합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변수들의 선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추출의 방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은 베리멕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베리멕스(Varimax) 방법은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방식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이나 판별분석 등을 수행할 경우 요인들에 대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34]

<표 2>는 각각의 정책 요인과 수출성과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문항 선택의 기준을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과 공통성 0.40 이상으로 보았다. 먼저 무역정책의 4개 문항 분석 결과 단일요인(60.085%)으로 나타나 문항들이 단일차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2.403, 적재량은 모두 0.40 이상으로 문항을 제거할 필요없이 분석에 이용 가능하다. 둘째, 환율정책의 3개 문항 분석 결과 단일요인(80.185%)으로 나타나 문항들이 단일차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2.406, 적재량은 모두 0.40 이상으로 문항을 제거할 필요없이 분석에 이용 가능하다. 셋째, 노무정책의 5개 문항 분석 결과 단일요인(71.296%)으로 나타나 문항들이 단일차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3.565, 적재량은 모두 0.40 이상으로 문항을 제거할 필요없이 분석에 이용 가능하다. 넷째, 세무정책의 2개 문항 분석 결과 단일요인(65.293%)으로 나타나 문항들이 단일차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1.306, 적재량은 모두 0.40 이상으로 문항을 제거할 필요없이 분석에 이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출성과의 4개 문항 분석 결과 단일요인(67.279%)으로 나타나 문항들이 단일차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2.691, 적재량은 모두 0.40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문항을 제거할 필요없이 분석에 이용 가능하다.

34) 송지준, 「논문 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0, pp.71～77.

〈표 2〉 요인분석 결과

설문 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Eigen Value	분산 설명력(%)
무역정책	B-1	.668	.446	2.403	60.085
	B-2	.788	.621		
	B-3	.820	.673		
	B-4	.814	.663		
환율정책	C-1	.893	.798	2.406	80.185
	C-2	.902	.813		
	C-3	.891	.794		
노무정책	D-1	.853	.727	3.565	71.296
	D-2	.781	.610		
	D-3	.876	.768		
	D-4	.890	.792		
	D-5	.818	.668		
세무정책	E-1	.808	.653	1.306	65.293
	E-2	.808	.653		
수출성과	F-1	.836	.698	2.691	67.279
	F-2	.803	.644		
	F-3	.833	.694		
	F-4	.809	.654		

(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문응답의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 분석 결과의 판단은 Cronbach's Alpha 값으로 한다. 학자들마다 해석의 기준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신뢰도 분석 결과표로 무역정책, 환율정책, 노무정책, 수출성과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0.763, 0.861, 0.890, 0.832로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형성되었지만 세무정책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0.468로 0.6의 값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들의 위계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세무정책 요인을 분석에 그대로 투입한다. 따라서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표 3〉 신뢰도 분석 결과

잠재요인	문항내용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무역정책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폐지	0.773	0.763
	수출 증치세 환급지연에 따른 자금압박	0.689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 대상 확대	0.687	
	은행보증금제도 강화	0.681	
환율정책	위엔화 평가절상	0.823	0.861
	위엔화 변동성 확대	0.775	
	위엔화 예측 불능	0.817	
노무정책	인건비 상승	0.874	0.890
	인력수급의 어려움	0.885	
	최저임금규정 강화	0.851	
	사회보장제도 강화	0.845	
	노동관리 강화	0.871	
세무정책	세무조사 확대 및 강화	-	0.468
	세제 혜택 폐지	-	
수출성과	수출성과 만족도	0.778	0.832
	수출 수익률	0.793	
	수출 성장률	0.779	
	시장 점유율	0.800	

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관계가 아닌 변수들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고 +1이거나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본 연구의 정책 요인들과 수출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414~.744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잠재요인	Mean	Std.	1	2	3	4	5
무역정책	2.8271	.47881	1				
환율정책	4.0748	.61311	.414*	1			
노무정책	3.9065	.64035	.562*	.744*	1		
세무정책	3.3972	.41058	.473*	.574*	.516*	1	
수출성과	2.5678	.57212	-.473*	-.662*	-.718*	-.417*	1

* p 〈 0.01

3) 위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는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 요인의 위계적 구조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무역관련 정책 요인과 수출성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표 5>는 이러한 위계적 구조와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첫째, 모델 1은 무역정책이 수출성과를 22.4%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정책 요인의 변화는 기업의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507, p=.000)

둘째, 모델 2는 모델 1에서 환율정책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1에 비해 수출성과를 26.3% 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정책 요인(t=-3.115, p=.002)과 환율정책 요인(t=-7.290, p=.000)은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델 3은 모델 2에서 노무정책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2에 비해 수출성과를 7.2% 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정책 요인(t=-2.950, p=.004)과 노무정책 요인(t=-4.131, p=.000)은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역정책 요인(t=-1.314, p=.192)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4는 모델 3에서 세무정책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다. 모델 4는 수출성과를 56.1%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3에 비해 0.2% 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정책 요인(t=-2.943, p=.004)과 노무정책 요인(t=-4.133, p=.000)은 수출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역정책 요인(t=-1.407, p=.163)과 세무정책 요인(t=.536, p=.593)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정책 요인은 노무정책 요인(베타=-.447)이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율정책 요인(베타=-.308)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 값도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도 문제가 없고 Durbin-Watson은 1.825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해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해 현지에서 제조 및 가공을 하는 기업들의 성과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회귀결과 값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과 세무정책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노무와 환율정책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 기업과의 인터뷰 결과 무역과 세무정책의 요인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무와 환율정책의 변화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너무 막대해 그 영향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업 및 정부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표 5〉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	.294	-	14.150 (.000)	.304	-	18.161 (.000)	.283	-	19.668(.000)	.332	-	16.491 (.000)	-
무역정책	.103	-.473	-5.507 (.000*)	.092	-.240	-3.115 (.002*)	.094	-.104	-1.314 (.192)	.099	-.116	-1.407 (.163)	.632
환율정책				.072	-.563	-7.290 (.000*)	.091	-.289	-2.950 (.004*)	.098	-.308	-2.943 (.004*)	.393
노무정책							.096	-4.45	-4.131 (.000*)	.097	-.447	-4.133 (.000*)	.368
세무정책										.118	.045	.536 (.593)	.603
통계량	R제곱=.224, 수정된 R제곱=.217, F=30.329, P=.000			R제곱=.487, 수정된 R제곱=.477, F=49.270, P=.000			R제곱=.559, 수정된 R제곱=.547, F=43.608, P=.000			R제곱=.561, 수정된 R제곱=.544, F=32.551, P=.000, Durbin-Watson=1.825			

* $p < 0.01$

V. 결 론

중국은 대외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른 통상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대내적으로 자국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해 정책의 수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중국 현지에서 제조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 위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현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계적 구조와 영향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위계적 구조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율과 노무정책 요인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구조는 노무정책 요인의 베타값이 -.447로 환율정책 요인의 베타값 -.308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수출성과에 노무정책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환율정책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상당수는 환율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많은 영향도 받지만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진출한 생산형 기업이 상당수이므로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기업 및 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역정책 요인과 세무정책 요인의 위계적 구조는 무역정책 요인의 베타값이 -.116, 세무정책 요인의 베타값이 .045로 노무정책, 환율정책, 무역정책, 세무정책의 순이지만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인건비 상승, 인력수급의 어려움, 위엔화 평가절상과 같은 요인이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증치세 환급, 기업소득세율 조정, 제한품목 확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은 미미하게 생각될 뿐이지 그 영향 또한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요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결국 중국의 무역정책 요인과 세무정책 요인에 대한 대응전략도 기업과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최근 무역 관련 정책 요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현지의 생산형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기업의 표본수가 적고 중소기업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정책 요인에 대한 연구변수가 제한되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형종, “투자환경리스크와 대응전략이 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강승구, “중국의 조세환경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지연, “대중국 통상환경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유통정보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유통정보학회, 2011.

박애란, “체제전환기 중국 통화 및 환율정책의 운용과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송지준, 「논문 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2010.

안재진, “중국 무역정책의 주요 변경 내용과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

학회, 2006.

왕효뢰, “변동환율제도하의 위안화 환율변동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 상관관계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희운,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유 정,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中國學論叢」, 제34권, 한국중국문화학회, 2011.

정설정,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이 한국기업 중국투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최창열,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한상현,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관리제도 변경내용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논문집」, 제37집, 강남대학교, 2001.

한준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하현수, “중국의 가공무역관련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허자천, “현지화 전략을 통한 차이나 리스크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함정오, “재중 한국계 외자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KOTRA,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하)」, 2011.

Adamantios Diamantopoulos, “From the Guest Editor”,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6(3), 1998.

Carlos M. P. Sousa, “Export Performance Measurement: An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Literatur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Review*, 8(9), 2004.

Constantine S. Katsikeas, Leonidas C. Leonidou and Neil A. Morgan, “Firm-level Export Performance Assessment: Review, Evalu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4), 2000.

Donald C. Hambrick and Phyllis A. Mason, “Upper Echelons: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84.

Nils-Erik Aaby and Stanley F. Slater, “Management Influences on Export Performanc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1978~88”,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6(4), 1989.

Peter V. Raven, Jim M. McCullough and Patriya S. Tansuhaj,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Decision-Making Uncertainty in Export Channels: Effects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2(3), 1994.

關志雄, “トップ500社から見た中國企業の實力”,「中國經濟新論」, 2002.

水野亮,「中國の輸出制限的な動きの問題」, JETRO, 2007.

楊玉華,「國際貿易對就業的影響」, 經濟管理出版社, 2007.

井上和子, “擴大する中國の貿易黑字と貿易構造轉換—進められる加工貿易の抑制”, 経済センサー, 2007.

郭永興, “轉換期に立つ中國の來料加工貿易制度”,「京都大學経濟論叢」, 第182卷 第2号, 2008.

上田慧, “中國·珠江デルタにおける委託加工貿易の変貌”,「同志社商學」, 第60卷 第1·2号, 2008.

韓堅放, “中國における加工貿易の産業構造高度化と課題”,「關西外國語大學研究論集」, 第90号, 2009.

河原昌一郎·明石光一郎, “中國の加工貿易とFTA戰略”,「農林水産政策研究」, 第17号,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China's Trade-related Policy Changes on Export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China

Jae-Sung, Hong* · Yong-Keun, Lee**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y, after 2000s, factors of the Chinese government's trade policy changes would be a significant burden on the company. However, many previous studies were limited to the response strategy by judicial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xport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China. Also, by using that result, I would like to provide advises for entered the korean companies in Chinese market

As the results, I knew that export performance are most heavily influenced by labor policy factor and the fallowing is exchange rate policy factor. Eventually, Most of our country companies entering in china were affected changes in the exchange rate policy factor, but many company were manufacturing-type businesses to economize labor costs. Therefore, corporate and governmental response strategies are needed for that's companies.

Key Words : China, Policy Changes, Export Performance, Hierarchical Structure

* Ph.D,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